

지역건축탐방 8 - 전주 · 익산 · 군산(하)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Cheonju · Iksan · Kunsan

지난호 상편에서는 전주 · 익산 · 군산의 역사적 배경과 전주의 도시 건축에 대한 지역성을 탐색했다. 이에 이어 하편에서는 전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익산과 군산의 도시 건축을 탐색해 보겠다.

상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북을 대표하는 3개의 도시, 전주, 익산, 군산은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동일 문화권이지만 지켜온 현상들에서 서로 다르며 격리된 느낌의 단부소외성을 지니고 있다. 전북은 우선 완주, 익산, 고창에 이르는 백제, 마한의 평야와 해안의 문화권과 이씨왕조의 분향으로 고도의 특색을 지닌 도시문화권인 전주권, 거대한 산세를 자랑하는 지리산의 자연과 맥을 같이하는 남원권역으로 크게 대별 되어진다.

전북지방의 건축문화적 토대는 여타의 문화와 동일하게 백제의 숨결속에서 느낄 수 있다. 화려함도, 아기자기함도 없지만 있는 그대로, 한국의 정서를 압축한 듯 절박함을 바탕으로 한 백제의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지나간 시절의 영화가 현재에 재현되거나 지속되고 있지는 못하나 지난 삶의 자취에서, 이곳 사람들의 인정에서, 맛의 문화에서 그 깊이와 멋의 기닥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의 도시들은 이러한 도시형성상의 문화적 지혜나 건축적 해안을 관찰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우리의 최근의 역사들은 연약하지도, 섬세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시에 옛 자취를 휩쓸어 버리는 강성을 지녀 흔히 담긴 과거의 흔적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주시하였고, 옛 백제 문화의 정신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을 관찰하며 반성도 했고, 이어지고 남겨져야 할 이 고장의 특성을 헤아렸다. 마지막으로 이 고장의 미래가 발전적이기를 염원도 해 본다. <김병윤 / 편집디렉터>

(상)	백제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 김동수(백제예술대 교수)	
	도시의 기억, 도시의 건축 / 양상현(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수료)	
<hr/>		
(하)	지역성의 표징; 건축과 장소성의 특성 / 진 정(전북대 건축과 교수)	54
	익산의 어제와 오늘 / 윤충열(원광대 건축과 교수)	58
	잠자는 도시에서 도약하는 도시로 / 최산호(호원대 건축과 교수)	62
<hr/>		
	좌담: 전주 · 익산 · 군산 / 전북지역 건축문화의 특성과 전망	71
	- 일시: 1998년 8월 17일 15:00~	
	- 장소: 전북건축사회관	